

# ‘장타 싸움’은 압도...팀 타율·득점권 타율은 ‘바닥’



김도영

## KIA 타선의 ‘두 얼굴’...장타력 ‘↑’·연결성 ‘↓’

### 타선 고른 활약...‘흐름을 바꾸는 힘’ 홈런·2루타 리그 1위 병살타 공동 1위·삼진도 상위권...득점 생산력 ‘들쭉날쭉’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타선의 올 시즌 색깔은 뚜렷하다. 많이 치기보다 강하게 친다. 장타 중심 공격은 최근 몇 시즌 동안 KIA 타선의 한 축이었다.

올 시즌도 다르지 않다. 다만 공격 연결성에는 경기마다 차이가 나타난다.

11일 기준 KBO에 따르면 KIA는 팀 홈런 41개로 리그 1위다. 2루타도 70개로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많다.

이 부문 2위 SSG와도 10개 차로 앞서 있다. 장타력 지표인 IsoP(0.154) 역시 리그 최고 수준이다. 맞으면 멀리 간다. 한 번의 스윙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힘이 있다.

이런 성향은 최근 경기에서도 두드러진다. KIA는 최근 10경기에서 홈런 13개를 기록했

다. 한화 다음으로 많다. 2루타는 20개로 리그 1위다. 장타율도 0.415로 전체 3위다. 리그 평균(0.393)을 훌쩍 넘어선다. 강한 타구 생산은 꾸준하다.

반면 공격 연결성은 다소 엇갈린다. 최근 10경기 팀 타율은 0.240으로 리그 9위다. 안타 수 역시 81개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득점권 타율도 0.250으로 8위에 그친다.

장타로 경기 흐름을 바꾸는 장면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연속 안타를 통한 연결은 아직 일정하지 않다.

이는 시즌 전체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KIA의 팀 안타는 321개로 리그 6위다. 득점권 안타 역시 86개로 중위권이다. 인플레이타구 안타 비율(BABIP)도 0.298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반면 2루타 이상 장타는 111개로 리그 최하다.

타수 대비 장타 생산 비율 역시 가장 높다. 전체 안타 생산보다 장타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구조다.

공격 전개가 한 번에 끊기는 장면도 있다. KIA의 병살타 30개는 리그 공동 1위다. 특히 1사 1루 병살타 비중이 높다. 그나마 최근 경기에서는 빈도가 다소 줄어드는 모습이다.

삼진 역시 적지 않다. 올 시즌 총 285개다. 최하위 기록 다음으로 많다. 적극적인 스윙과 장타 지향 성향이 함께 나타나는 대목이다.

결국 현재 KIA 공격의 중심에는 장타력이 있다. 특정 타수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도 특징이다.

리그 정상급 파괴력은 분명한 강점이다. 여기에 연속 안타를 통한 연결성까지 조금씩 살아난다면, 공격에서 한층 더 완성도를 갖출 가능성이 크다. 물론 방망이가 매번 터질 순 없다. 그래도 득점 기록을 줄이는 건 앞으로의 과제라고 남아 있다.

한 야구계 관계자는 “KIA는 한 번 타력을 받으면 가장 무서운 팀 중 하나”라며 “지금처럼 장타력이 유지된다면 얼마나 출루를 늘리고 중심 타선으로 연결하는지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현 <KIA 타이거즈 제공>

# 광주시청 육상 이재성, AG ‘금빛 질주’ 예약

### 국가대표 선발전 겸 육상선수권 100m ‘銅’...박지영 女 100m 허들 ‘銅’

지난해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와 라인-루르세계유니버시아드 남자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땀던 광주시청 이재성이 이번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메달에 도전한다.

이재성은 12일 강원도 정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20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1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 대회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열렸으며 100m 1위는 나마디 조엘진(10초09), 2위는 비웨사 다니엘(10초13)이 차지했다. 10초13으로 3위를 기록한 이재성은 100m 전체 세 번째 기록으로 태극마크를 확정했다.

이재성은 앞서 열린 대회 남자 100m 예선에서 10초26, 준결승에서 10초23을 기록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도 스타트가 좋아 초반 앞서갔으나 나마디 조엘진, 비웨사 다니엘과 거의 동시에 결승선을 통과했고, 사진판독 끝에 3위를 기록했다.

이재성에게 이번 아이치·나고야대회는 항저우에 이어 두 번째 아시안게임이다. 지난 2023년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는 육상 남자 4x100m 계주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시청 박지영은 여자 100m허들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박지영은 이날 결승에서 13초89를 기록, 류나희(안산시청,13초56), 조수진(용인시청,13초61)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이재성이 그동안 준비를 잘해왔고 예선과 준결승에서 전체 1위를 하는 등 페이스가 좋았는데 결승 막판 힘이 들어간 것 같다”면서 “100m에서 1, 2위 다음



이재성 박지영

로 가장 좋은 기록이기에 국가대표로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육상이 아직 중국과 일본을 쉽게 넘어설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대표팀 멤버들의 기록이 좋아 금메달 도전도 해볼만하다”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



12일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2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막식에서 광주(왼쪽)와 전남선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광주시·전남도장애인체육회 제공>

# 광주, 육상 서예진...전남, 수영 정우찬 ‘첫 금’

### 제20회 장애인체육대회 개막...광주 금2·은2·동3, 전남 금3·은4

제2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한 광주·전남선수단이 대회 첫날부터 ‘금빛 낭보’를 전했다.

12일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 열전에 돌입한 광주선수단은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광주선수단의 대회 첫 메달은 육상에서 나왔다.

육상 남자 창던지기 F20 고등부에서 강민호(광주선명학교 2)가 27.11m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신고했고, 여자 창던지기 F20 고등부에서 서예진(광주선명학교 3)가 17.25m 기록으로 광주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수영에서는 김하진(광산중 3)이 여자 자유형 100m S14 중등부에서 1분19초76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남자 자유형 100m S14

초등부 조하준은 1분15초09로 동메달을 추가했다.

역도에서는 김유나(선예학교 2)가 여자 -60kg급 중등부 스쿼트, 데드리프트에서 53kg과 71kg을 들어올려 동메달 2개, 파워리프트 종합 124kg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전남선수단도 수영과 육상에서 금메달 4개와 은메달 4개를 획득하며 순항을 예고했다.

전남선수단 첫 금메달은 수영 초등부에서 나왔다.

남자 자유형 100m S7-S8에 출전한 정우찬(여수양지초 6)이 2분38초19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 패드를 터치하며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육상에서도 금메달이 쏟아졌다.

황다연(함평영화학교 3)이 여자고등부 800m T20에서 3분04초27로 금메달을 따낸 데 이어 국사랑(소림학교 1)이 여자중등부 800m T20에



서예진 김하진 황다연

서 3분15초01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보냈다.

이어 수영 여자고등부 자유형 100m S14에 출전한 황정인(여수충무고 1)과 여자고등부 자유형 100m S5-S6 성유하(목포제일여고 2)가 각각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육상 여자고등부 800m T20에 출전한 박은서(은광학교 2)와 여자중등부 800m T20 김상은(순천선혜학교 3)도 값진 은메달을 획득하며 전남선수단 선전에 힘을 보탤다. /박희중 기자



# 광주시체육회장배 보디빌딩&피트니스대회 성료

### 동호인 100여명 참가 열띤 경쟁

광주 보디빌더들의 축제인 제8회 광주시체육회장배 생활체육 보디빌딩&피트니스대회가 지난 9일 광주대 호심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대회에는 대회장인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김종석 광주시보디빌딩협회장, 김상은 대한보디빌딩협회 부회장, 충남·경북 등 시도 보디빌딩협회장 등이 함께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 대회에는 광주지역 보디빌딩 동호인 등 1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스포츠 모델, 비키니, 피지크, 레깅스 등 다양한 종목에서 수준 높은 경기력을 선사해 관중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광주시체육회 생활체육위원회 소속 한선영 부위원장과 자녀 한동규(바운스 짐) 군이 부자(父子)로 출전해 눈길을 끌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광주시체육회장배 보디빌딩대회는 빛고를 보디빌딩 저변 확대와 활성화 등에 꾸준히 기여했고, 시민 건강 증진과 건전한 스포츠 문화 조성에도 앞장서 왔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여덟 번째를 맞이한 광주시체육회장배가 앞으로도 빛고를 보디빌딩의 성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시체육회는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지난 10일 끝난 제68회 전국조정선수권대회에서 출전 전 종목 메달을 획득한 목포해양대 선수단. <전남도체육회 제공>

# 목포해양대 박지성·오준교 ‘2관왕’

### 전국조정선수권대회, 광주시체육회 김지선 2관왕

광주시체육회 김지선이 제68회 전국조정선수권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김지선은 지난 10일 김해 대동생태공원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일반부 경량급 싱글스킬에서 7분5초13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지선은 팀 동료 김정민과 호흡을 맞춘 더블스킬에서도 7분20초25의 기록으로 박제안-안예선(군산시청·7분23초94)조를 따돌리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김정민은 싱글스킬에서 8분06초87의 기록으로 김승현(군산시청·7분56초71), 박지운(송파구청·8분02초39)에 이어 동메달을 추가했다.

남자대학부에 출전한 목포해양대는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를 따내며 전 종목 메달 획득이라는 선전을 펼쳤다.

박지성-안승태-오준교-조영서가 팀을 이룬 쿼드러플 스컬, 오준교-김찬이 호흡을 맞춘 무타페어, 박지성이 출전한 중량급 싱글스킬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밖에 안승태-조영서가 호흡을 맞춘 더블스컬, 장이태라가 출전한 경량급 싱글스킬에서 은메달을 따냈고, 이에원은 여자대학부 중량급 싱글스킬-경량급 싱글스킬에서 값진 은메달을 보냈다. 박지성과 오준교는 대회 2관왕에 올랐다. /박희중 기자